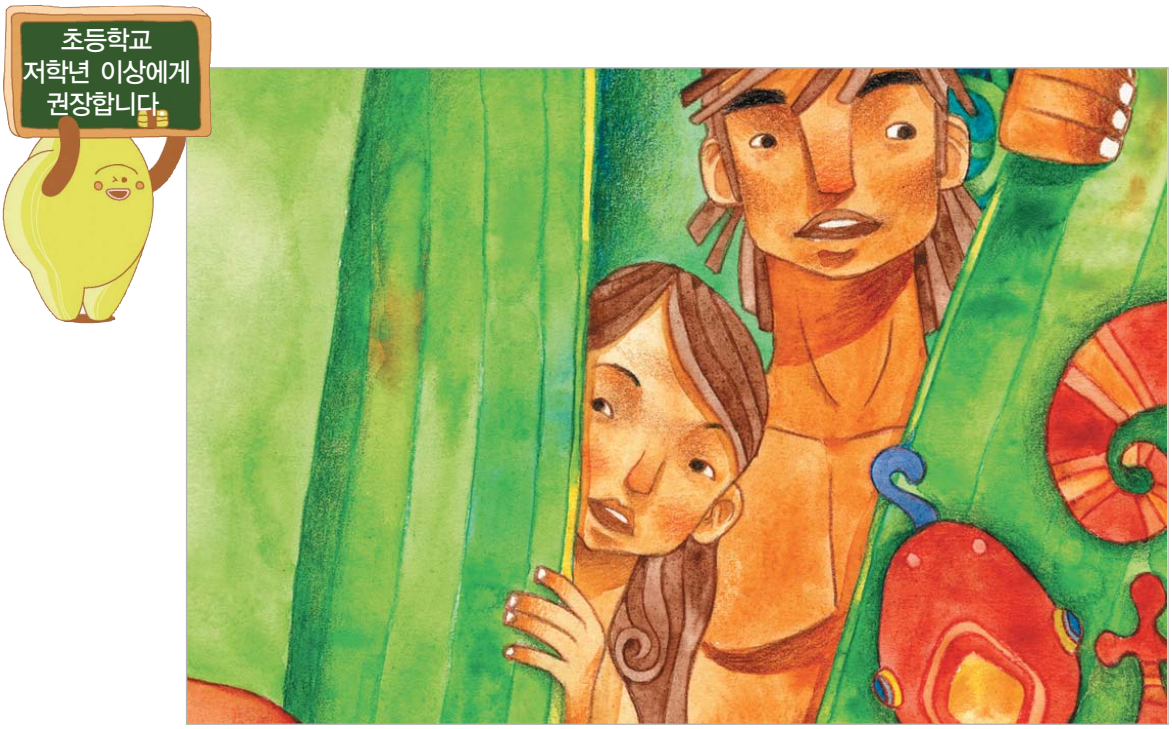
6)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생겨났나



이 동화는요

이 동화는 필리핀의 비사야(Vysayas)와 타갈로그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최초의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옛날에 세상이 낙원이었을 때 동물과 식물은 많았지만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. 어느 날 새들의 왕이 큰 대나무 위를 기어 다니는 도마뱀을 보고 잡아먹으려고 부리로 찍었는데, 도마뱀 대신 대나무를 찍어 대나무가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. 그 안에서 '말라카스(Malakas)' 라는 이름의 남자와 '마간다(Maganda)' 라는 이름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. 새는 두 사람을 태우고 낙원의 모든 곳을 돌아다녔는데, 그러다 진주를 닮은 섬들을 보고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. 말라카스와 마간다가 본 그 섬은 필리핀의 섬들이었고, 그때부터 이들이 여기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.

이 동화를 본 후 어린이들은

- 남자와 여자는 같은 기원과 중요도를 갖고 태어났으며, 신체적, 생물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존중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.
-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 섬에 대해 갖고 있는 자부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.
- 필리핀의 자연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습니다.
- 다양한 나라와 민족에 전해 내려오는 자기 나라와 민족에 관한 신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.
- 필리핀의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며, 필리핀의 자연과 사람들에 대한 흥미를 가집니다.
- 그림 이야기 속에 나오는 대나무로 할 수 있는 필리핀 전통놀이를 알 수 있습니다.

동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.

- 새는 말라카스와 마간다를 어떻게 발견했나요?
- 말라카스와 마간다가 살고 싶어 한 곳은 어디였나요?
- 왜 말라카스와 마간다에게는 필리핀이 '진주를 닮은 섬'으로 보였을까요?

알아봅시다.

– 말라카스(Malakas)와 마간다(Maganda)가 무슨 뜻인지 알아봅시다.

Tip!

말라카스(Malakas)의 'lakas'는 타갈로그어에서 '강하다'는 뜻을 갖고 있고, 마간다(Maganda)의 'ganda'는 '아름답다'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

– 양성평등에 대해 알아봅시다.

Tip!

남자와 여자는 신체적, 생물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원과 중요도를 갖고 태어나며, 서로 존중해야 함에 대해 강조하도록 합니다.

체험해 봅시다.

- '옛날에 세상은 아름다운 낙원이었다고 해요.'를 타갈로그어로 따라해 봅시다.

Tip!

올리볼리 그림동화의 웹사이트를 참고합니다.

- '남자 같은 여자, 여자 같은 남자'를 주변에서 찾아보고, 두 가지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는 장점이 무엇인지 발표해 봅시다.(예를 들면, 운동을 잘하는 친구는 여자 친구들 뿐만 아니라 남자 친구들과도 운동을 하면서 서로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.)
- 영상을 통해 7,107개의 섬나라인 필리핀을 이해하고, 필리핀의 대표적인 섬(대표적 도시명, 기후, 사람들, 종교등 포현)들을 모둠별로 맡아서 자료를 정리해 발표합시다.
- 그림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필리핀 대나무로 할 수 있는 필리핀 줄넘기 '카당카당'을 직접 해 봅시다.

참고 자료

- 『꾸무스따 필리핀』(2011). 국립민속박물관
  국립민속박물관의 '다문화 꾸러미' 시리즈의 하나로, 필리핀의 자연환경, 역사, 전통 옷, 음식, 집, 교통수단, 명절과 축제, 음악과 춤, 전통놀이, 필리핀 어린이의 학교생활 등에 대해 생생한 그림 및 사진 자료와 함께 알기 쉽게 소개한 책입니다. 필리핀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사진 카드와 CD-ROM 자료도 함께 들어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. (문의전화: 02-3704-4506/4510, 홈페이지: http://www.kidsnfm.go.kr/culturebox)
- 필리핀의 섬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.
  http://blog.daum.net/gophil/13379060